



2면

농생명바이오 융합산업 활성화 모색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7월 20일 목요일 (음 6월 3일) 제3309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익산·김제 죽산,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 대통령 재가 받아 우선 선포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 국비로 추가 지원 피해주민 재난지원금 지원·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전북도 "신속한 피해조사·복구에 속도 낼 것"

익산시와 김제 죽산면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와 토대로 선포기준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도내에서는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포함됐다. 이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정부는 또 이번 우선 선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도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도내에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익산 합리여 594mm, 군산시 572mm의 강우가 내려 도로 낙석 등 공공시설 78건의 피해와 농경지 1만5,978ha가 침

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익산시에서는 4,400ha의 농작물 침수 피해를 입었고 249건의 하천 및 도로 파손 230여건의 주택침수, 147건의 산사태 등 산림분야 피해가 발생했다. 김제 죽산면은 약 1,600ha 농경 침수가 발생해 별도의 복구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김관영 도지사는 18일 익산시 피해지역에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중앙부처와 여야 정치권에 특별재난지역의 우선 선포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도는 관련부서, 시군과 함께 공공시설 7일 사유시설 10일간 피해조사를 철저히 진행해 단 한건의 피해도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원인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분

석 후 복구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복구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아울러 피해주민에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제·지방세 납부예외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의 발 빠른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향후 행정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피해 지역을 신속히 조사해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한편, 피해 원인조사와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社 告

참신한 인재를 찾습니다

인간중심·도덕중심·지역중심을 추구하는 전주매일신문사가 바른마음·바른생각·바른행동에 열정과 패기가 넘치는 참신한 인재를 초대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자 격 조 건
취재기자(본사)	0명	일간지 근무 경력자 우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지역주재기자(원주)	"	"

- ▶ 접수기간 2023년 7월 31일까지
-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접 수 처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서노송동) 문의 063-288-9700 (본사총무팀)

전주매일

전북도, 광역지자체 'K-웰니스 도시' 선정

인증서·현판 수여받아 "관련 사업 육성 노력할 것"

전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웰빙과 행복, 건강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른바 '웰니스' 도시로 인정받았다. 전북도는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웰니스 도시' 선정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받았다. 도에 따르면 한국웰니스산업협회가 지난 2019년부터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산림치유, 힐링명상, 건강 등 16개의 특화 분야에서 'K-웰니스 도시'를 선정해 왔으며, 올해 최초로 도·광역시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전북도가 선정됐다. 'K-웰니스 도시'는 웰빙, 행복, 건강을 추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도시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단체장의 웰니스산업 육성 의지 및 웰니스 관련 기반 시설, 웰니스산업 육성 계획, 관광객 수용태세 현장확인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된다. 'K-웰니스 도시'의 인증기간은 19일부터 오는 2026년 7월 18일까지 3년간이다. 향후 3년간 전북은 협회가 개최하는 K-웰니스데이, 국내외 전시회와 컨퍼런스 등 각종 행사에서 우리나라 대표 웰니스 도시로 홍보된다. 전북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추천 웰니스 관광지'에 진안홍삼스



1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사)한국웰니스산업협회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K-웰니스 도시' 선정 인증서와 현판 수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 원주 안덕건강힐링체험마을, 무주 태권도원이 있다. 특히, 도는 민선 8기 도정 핵심전략인 휴양·치유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전북형 치유관광지 10개소를 선정해 대표 콘텐츠 발굴, 여행상품 개발 수용태세 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가 올해 추진한 '웰니

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 사업에도 선정됐다. 이에 전통문화·음식·자연생태 등 지역의 우수한 웰니스 관광자원과 양방향 협진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가장 한국적인 웰니스·의료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구성, 전문인력 양성 통합 브랜드 개발, 안심관광 케어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하

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국내외 관광객에게는 마음의 치유를, 우리 지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대표 웰니스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도내 웰니스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천경해운 컨테이너선 군산항 첫 입항

1000TEU급 '스카티아라호'... 베트남 하이퐁항 출발 신규항로 개설 양해각서 체결 따라... 매주 월요일 입항

군산시는 19일 오전 7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이하 GCT)에 천경해운(주) (대표이사 서성훈) 소속의 컨테이너선 스카티아라호가 첫 입항했다고 밝혔다. 스카티아라호는 지난 13일 저녁에 베트남 하이퐁항을 출발 19일 오전 8시에 GCT 부두 68번 선석에 정박해 화학제품(탄산칼슘 및 인산칼슘) 및 철재(봉관 파이프) 등을 안착했다. 이번 입항은 지난 6월 28일 군산~베트남 하이퐁 신규항로개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첫 입항하게 됐다. 입항한 스카티아라호는 20피트 컨테이너 1,000개를 선적할 수 있는 9,940톤의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군산과 베트남의 하이퐁 중국의 친조우·사민을 연결하는 항로에 운항되며 주 1회 매주 월요일 군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신규 개설된 군산~베트남 하이퐁 항로의 주요 화물은 알루미늄, 우드펠릿, 폐배터리, 환경 냉동식품 등으로 연간 1.5만TEU 화물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카티아라호의 군산항 첫 입항을 축하하기 위해 GCT를 찾은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스카티아라호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며, 많



19일 열린 스카티아라호의 군산항 첫 입항 축하 행사. (사진=군산시청 제공)

은 물동량을 싣고 군산항에 입항해 군산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경해운(주)의 군산항 취항으로 GCT에 기항하는 선사는 총 3개사 5개 항로가 운영되며, 물동량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연간 3만TEU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화물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군산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입하는 선사, 화주, 포워더 및 물류기업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00여억원을 지원했으며,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함께 군산항 포트세일즈 실무 추진단을 꾸려 도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산=김판관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